

News

주담대 5%대 등장에 고정금리 비중 3개월째 상승… "적기 아닐수도"

뉴스1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5%대까지 오르면서 신규 가계대출 중 금리 변동에 영향 받지 않는 고정금리 비중이 3개월 연속 상승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대출자들이 증가했기 때문… 은행권, 내년초까지 점진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자 비중 올라갈 것으로 전망

"중금리대출 비중 7% 더 늘려야"… 조급해진 카카오·케이뱅크

조선비즈

카카오뱅크, 3분기 말 기준 중금리대출 비중 13.4%…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목표치 20.8%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
케이뱅크 또한 목표치 21.5%에 미달하는 상황… 두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중금리대출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신용자 대출 제한 및 중·저신용자 대상 이자 지원 등 진행 중

디지털점포는 '그림의 떡?'… 저축·지방은행, 온라인으로 '승부'

머니S

저축·지방은행, 디지털 점포 구축에 지지부진한 모습… 시중은행 대비 규모나 이익 등이 작아 설치, 운영 등에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
플랫폼 개편, 메타버스 활용방안을 모색해 온라인 중심 디지털 역량을 강화 중… 다만 급격한 온라인 전환보다는 전통적 오프라인 점포 이용객을 고려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

늙어가는 은행, 연말 희망퇴직 비용만 조단위 넘어서나

아시아투데이

5대은행,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 지출… 연말 대규모 희망퇴직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가분수적인 은행 인력구조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평균 근속연령이 높아지고 올해 높은 실적 기록해 희망퇴직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 허용"

동아일보

고승범 금융위원장,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 유연화 기준 만들어 실행" 언급… 규정 완화로 보험사는 펫보험, 해외보험 등 판매하는 별도 법인 설립 가능
또한 보험사 앱을 원앱으로써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마이페이지 허용을 검토해 계좌조회,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언급

보험업계, 올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증가… 신상품 경쟁 치열

비즈팩트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 치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총 33건, 이중 보험사들이 획득한 건수는 총 26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가 여러 보장에 대한 새로운 니즈 창출… 타사에서 팔지않는 독창적 상품으로 경쟁해야해서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업계 니즈가 높아져…

대세는 MTS… MZ들, 주식거래 판까지 뒤집었다

파이낸셜뉴스

주식 시장에서 MZ세대가 주역으로 부상… 증권사들, 젊은 신규 주식 투자자들 잡아 시장 선점 효과 누리기 위해 점유율 경쟁 중
토스증권, 10월 기준 주식 위탁매매 약정거래 금액 0.61%로 49개 증권사 중 23위… 2030세대 개인투자자들의 유입 증가로 MTS 사용률 증가 분석

비상장 주식 투자 인기에 고액자산가, 벤처펀드 시장에서 두각

e대한경제

고액 자산가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출자 시장에서 큰손 역할.. PB센터를 통한 비상장주식 신탁상품 투자 혹은 사모펀드 형태 개인투자조합 결성 투자
최근 개인 출자 비중이 10%를 웃도는 벤처 펀드 등장… IPO열풍으로 비상장 주식에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 집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